금속노조통신 125호

발행일 2021년 6월 7일(월) ❙ **발행인** 김호규 ❙ **SNS** 페이스북 · 카톡채널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민주노조만 파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금속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농성 1주 차 마무리 … 11일 노동부 규탄대회 열어

“노조파괴 방관하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금속노조가 6월 4일 서울노동청 앞 집회를 끝으로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 1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투쟁에 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경남지부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집회 사회자 최윤정 노조 조직실장이 준비한 질문에 참가자들이 답하는 식이었다. 사회자는 농성에 결합한 소감이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해, 현장에서 실천할 활동 등을 물어봤다.

윤종균 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은 새벽에 출발해 농성에 참여하는 심정이 어땠냐는 질문에 “오늘 출발하기 전 잠을 설쳤다. 소수노조 지회장으로서 투쟁으로 복수노조 문제를 어떻게 현장에서 이슈화할지 고민하느라 그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성완 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장은 “악질 두산 자본이 12년 동안 엄청난 탄압을 했지만, 꿋꿋하게 금속노조와 민주노조 깃발을 지켜 다수노조로 조직했다”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정석 광주전남지부 기광산업지회장은 “노동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민주노조 파괴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면서 생산현장과 동떨어진 채 자족하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정석 지회장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도구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는 폐기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는 6월 8일 화요일부터 2주 차 농성투쟁을 다시 이어간다. 2주 차 일정은 1주 차와 마찬가지로 오전 국회 선전전을 시작으로 오후 헌법재판소 선전전을 거쳐 서울 노동청 집회로 마무리한다.

이번 농성 마지막 날인 6월 11일 금요일에 금속노조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벌이고 2주에 걸친 농성투쟁을 정리한다.

민주노총, 대통령 긴급 중대재해 노정교섭 요구

중대재해 해결 비상조치 촉구 … "대통령 안 나오면 해결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

민주노총이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 긴급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6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사람이 계속 죽는데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선호 씨 사망 이후 6월 4일까지 5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연일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조문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법 제도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사업장 원청 사용자·사용자 구속 ▲노동자, 시민참여 특별근로감독·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비상조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령 제대로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선호가 죽고 나서도 변한 게 없다.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기관장들이 찾아와 한결같이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 지키지 못할 공언만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나섰는데도 억울한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왜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려 한다"라고 제안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이 민주노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에 의지가 없는 거로 인정하겠다"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아버지 이재훈 씨에게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